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 산업 허브 위상 ↑ 농생명 기업 현장 애로 해결 성과

에너지특화기업 전국 최다 배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심 11개 기업 선정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2025년 에너지특화기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며 에너지 산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도내 11개 기업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지정된 전국 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특화기업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전북TP가 신규 에너지 특화기업 발굴을 위해 수시로 추진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와 지원 신청서 작성 컨설팅 등 적극적인 현장 밀착

지원의 성과로 평가된다. 지역별 선정 현황을 보면 전북이 11개 사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전남이 각각 9개 사, 경남 4개 사, 경북·충북 각 3개 사, 부산 2개 사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41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전북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전북의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10개 사였으나, 올해 신규 11개 사가 추가되면서 총 21개 사로 확대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기업은 (주)에코퀵, (주)하이솔, (주)에스엔전자, (주)에쓰에쓰컴퍼니, (주)퀵솔루션, (주)피엔에너지솔루션, 디이시스(주), 윈드코리아(주), (주)경일, (주)에이피그린, (주)에스윈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중점 분야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수소, 풍력, ESS, 전력변환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주)에스엔전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고장 진단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경일은 재생용 배터리를 활용한 AI 기반 ESS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하이솔은 풍력 블레이드 복합소재와 수소 운송용 극저온 단열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주)에스윈드는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 서비스를 통해 국

내 주요 풍력단지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지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매출의 50% 이상이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유치 연계, 디자인 개발 등 사업화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앞으로도 유망 에너지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과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특화기업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확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지역 농생명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컨설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2025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경력 활동가 현장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농식품·그린바이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신속히 발굴하고, 전문경력가의 실무 경험과 공공 보유기술을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진흥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 안내 645개사를 대상으로 애로기술 수요를 조사해 82개사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1개사에 공공기술 매칭을 추진했다. 이후 12개 기업을 선정해 총 16회의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과정에서는 원료 확보부터

공정 개선, 제품화,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공공기술 적용 가능성과 현장 노하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다복식품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고도화와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장컨설팅이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사례로, 도내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기술 확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기업별 성과도 이어졌다. 농업회사법인 (주)팔민은 고무마 스틱 부산물 활용 공정 지문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R&D 과제를 수주해 공동연구 성과를 도출했으며, 버섯마루는 목이버섯 균주 분양과 4차례 기술지도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후속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화재로 집 잃은 홀몸노인, 긴급 구호로 한 달 만에 새 보금자리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관계기관 합동... 주민 청원이 출발점

화재로 집을 잃고 한겨울을 걱정해야 했던 홀몸노인이 지역사회 도움으로 한 달여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대농마을에서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화재 이재민 긴급 구호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긴급 구호는 지난 11월 전기안전공사가 주최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기된 공개 제안이 계기가 됐다. 당시 주민들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생계마저 위협받는 홀몸노인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공공기관과 민간, 지자체가 신속히 협

력에 나섰다. 화재 피해 주택 부지에는 임시 주택이 설치됐으며,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전기 가설과 화질설 조명 설치를 맡았다. 또 싱크대 설치와 바닥 난방 시공 등 주거에 필수적인 공사가 진행돼 불과 한 달 만에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 완성됐다. 이날 보고회 이후에는 새 집 임주를 기념하는 '집들이' 행사도 열렸다. 긴급 구호에 참여한 기관들은 화재 피해 주민에게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이불, 탄소매트 등 겨울철 휴한기 대비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의 청원에 공공기관과 민간,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렇게 빠르



화재로 집을 잃고 한겨울을 걱정해야 했던 홀몸노인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한 달여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게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편 이번 사례는 주민 제안에서 출발해 기관 간 협력으로 실질적인 주거 복구까지 이뤄진 모범적인 긴급 구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사회공헌 인정패 수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패 기념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내촌군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도내 36개 인종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공헌 인정패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는 지역사회 의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공식적



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활동, 상생 금융 실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미래내일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공단과 제비잡안컨설팅이 공동 주최한 '2025년 미래내일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이 실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청년들이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 청년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현장 멘토링과 전문가 코칭, 평가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직

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청년 40명이 참여해 10개 팀을 구성했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AI 시대 디지털세대가 바라는 국민연금의 모습 △연금수급자 1천만 시대에 대비한 연금 외 부가혜택 제공 방안 등 공단이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 정의부터 전략 수립, 결과물 도출

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7개 팀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낸 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 결과 'AI 시대 디지털세대가 바라는 국민연금의 모습'을 주제로 발표한 GPS팀이 최우수상, 이음공 팀과 이루미 팀이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다. /오상근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지원 신청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하자로, 지원 대상자는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1%포인트 감면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